

# 강경의 발전방향

윤 석 일(강경역사문화연구원 전문위원)

이 강경의 비전은 강경에 살면서 평상시에 느낀 점과 특히 역사문화연구원 기획실장으로 봉사하며 강경이 근대역사보고임을 깨닫고 많은 분들의 고견을 모아 비전을 세운 것임

## 1. 근대역사문화 도시

강경은 삼대시장과 2대포구로 근대역사와 문화가 꽃이 피는 가운데 근대역사가 발 전해왔음. 그리하여 아직도 근대건축물이 180여 개나 있고 등록문화재가 10개(구 한일은행, 구 노동조합, 강경상고 관사, 중앙초등학교 강당, 강경연수당한약방, 강경화교 학교, 구 강경성결교회, 갑문, 배수장, 강경천주교회)이며, 또한 등록문화재에 준한 근대건축물이 5개(구세무서장관사, 구식산은행장 사택, 상강경교, 미곡창고, 김철수의 집)가 있어 근대의 소중한 정신문화가 담겨 있는 강경임. 강경의 비전을 말할 때 “근대역사문화의 도시 첫걸음의 고장 강경”으로 정하고 강경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이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

### 가. 등록문화재 등재 노력

(1) 부동산 : 구 세무서장 관사, 구 식산은행장 사택, 상강경교, 미곡창고, 김철수의 집, 미곡창고

(2) 동산 : 열차시간표, 금고(읍사무소, 구 한일은행, 구 세무서장 관사), 중앙초등학교 앨범  
나. 근대역사문화 관광코스 4개를 정비하고 확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극대화

### 다. 근대역사문화 박물관 건립

- 근대역사 도시 강경에 충남 근대역사 박물관 설립이 이루어져야 함. 부여, 공주는 백제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강경은 근대역사 문화의 도시로 개발하여 부여 공주와 연계하여 일본인 등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것(목포와 군산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근대 도시로 발전)

### 라. 옥녀봉과 정신문화

충청도 대규모 최초 3·1만세운동, 신차참배 거부로 일제의 만행의 현장

(1) 3·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해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야 할 것이며

(2) 방화로 소실한 ㄱ자형 교회 모형을 세워 일제의 만행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

### 마. 근대 일본인 생활코스(작은 역사 박물관)

- 구 세무서장 관사와 구 식산은행장 관사를 일본인 작은 역사 박물관으로 설립. 현재 이 관사의 내부는 거의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었으며, 특히 이곳에는 도쿄노마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일본인들이 살았던 생활모습을 한

눈으로 볼 수 있는 집으로 연구자들에게 검증받은 곳임(백제문화제에 참여하는 일본인들에게 이곳을 탐방코스로 소개)

바. 강경경찰서 순국경찰관 83위 성역화

(1) 내용 : 강경경찰서 성역화 83명의 순국자 추모관 및 유품전시관, 영화관 등, 전 국경찰관 교육훈련장, 전 국민의 국가관 및 애국애족 민족사상을 교육하는 순례코스지로 삼을 것

(2) 실례 : 이스라엘 마사다가 로마군인과 끝까지 싸우다 960명이 죽음으로 항거한 이스라엘 군인정신의 초석이 된 것처럼 이곳이 경찰 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의 초석이 되도록 함

(3) 장소 : 현 논산경찰서가 이전 되면 그 곳에 근대역사박물관과 순국경찰관 83위 성역화를 추진(전투 현장 재현, 유품 전시, 영화관, 교육장 등)

사. 물 사랑 교육관 건립

- 배수장에 물 사랑 교육관을 건립.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임. <물의 오염은 모든 생물을 위협하고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>라는 교육의 장이 필요

아. 스승존경관 활용

- 스승존경관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홍보와 아울러 강경에 탐방하는 모든 이에게 강경의 근대역사문화를 소개하여 탐방하도록 가꾸어 가야 할 것임

자. 강경근대문화축제

- 년 1회씩 <다 같이 돌자 강경 한 바퀴>의 축제를 실시하여 강경을 알리고 강경에 와서 근대역사문화를 공부하는 장으로 삼아야 함

## 2. 기독교성지순례지

가. 강경제일감리교회-지역 최초 사립 만동학교, 사립 유치원. 현재 근대역사전시관운용

나. 강경침례교회-한국 최초 침례교회 예배지, 7자형교회, 일제만행으로 교회에 방화 소실, 지도자 체포 구금, 7명의 순교, 교회부지 강탈하여 신사부지로 이전, 교단 해체. 이종덕 목사 순교, 개신교 충청도 최초 교회

다. 성결교회-선교사 구타로 정사각형 교회 건축. 신사참배 최초 거부지. 일본역사수업 거부지

라. 병촌성결교회-한국전쟁시 66명 순교, 기념관 설립

마. 강경천주교회-김대건 신부 유숙지

## 3. KTX역사 신축에 따른 비전(논산의 비전)

가. 신도시 형성과 논산-강경-연무를 한 축으로 묶는 새로운 비전

나. 이곳으로 삼청사(법원. 검찰, 경찰서)를 이전하여 법조타운 형성

- 다. 훈련소역으로 논산역을 이전하여 논산시의 새로운 발전 모색
- 라. 후속 조치로 강경을 진정한 역사와 문화도시로 새롭게 정비

#### 4. 우리가 꿈꾸는 강경

- 가. 온 주민이 함께 만드는 <근대역사문화마을, 강경>(전국에 유일한 근대 도시)
- 나.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근대 건축물의 보존과 정신문화 개발로 전국 읍중에 등록문화재가 가장 많은 읍으로 근대역사문화마을로 가꿈
- 다.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마을(역사 정립), 문화가 흐르는 마을(각종 동아리 활동),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(젓갈, 전통시장, 신산업 관광활성화), 뿌리 깊은 지역공동체를 만들
- 라. 이 일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근대 건축물들을 조사하고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임. 특히 소유자들이 근대 건축물의 소중성을 인식하게 하고 훼손하지 아니하고 지켜 온 것에 대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는 것임
- 마. <근대역사문화마을, 강경>을 이룩하여 근대역사교육 체험장으로 개발하여 역사를 살리는 운동을 펼침
- 바. 근대역사문화, 기독교성지순례, 유교문화단지, 일본인 생활환경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(젓갈시장 활성화와 함께)
- 사. 83위 순국경찰관 사건 성역화를 위한 영화 시나리오를 위한 소설 집필 중(정현수)이며,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 중

강경의 간절한 소망은『근대역사문화 마을, 강경』으로 지정되어 근대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. 이 일을 위하여 근대역사전시관, 강경역사관, 강경홍보관을 운영중에 있음. 근대역사문화 코스와 기독교성지순례 코스와 일본인 생활코스를 조속히 확정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온 주민이 함께 살아 있는 문화, 더불어 번영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함